



1

박새

거정새 긴 넥타이를 한 수다쟁이 텃새

평지나 산지 숲, 나무가 있는 정원, 도시공원, 인가 부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텃새로 나무 구멍, 돌 틈, 전봇대 구멍, 인공새집 등에 풀과 이끼를 이용해 폭신한 방그릇 모양의 둥지를 만든다. 먹이는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가며 먹이고 1마리가 1년 동안 약 85,000~100,000마리 곤충 유충을 사냥한다. 먹이활동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QR코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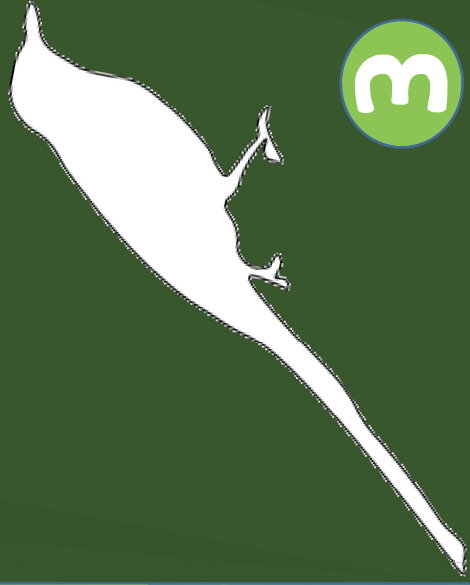
직박구리

숲속의 시끄러운 수다쟁이 텃새

나뭇가지와 잎이 많은 나무에 작은 나뭇가지, 식물의 줄기, 인간이 버린 줄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방그릇 모양의 둥지를 지으며 주로 나무에서 생활하며, 땅 위에 거의 내려오지 않는다. 시끄럽게 울어대며, 무리 지어 까치를 공격하기도 한다. 식물의 열매를 좋아하는 식성 탓에 자연스레 숲의 종자 분산 대리인 역할을 한다.



QR코드



3

물까치

가족애가 강한 대표적인 텃새

큰 나무 위에 마른 나뭇가지와 이끼류, 가는 뿌리, 칩 또는 흙으로 굳혀 오목한 모양의 둥지를 만든다. 둥지는 높은 곳에 지으며, 무리 생활을 한다. 다른 종에 비해 꼬리가 매우 길며 몸의 중심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경계심이 강하며, 천적이 둥지를 침격하면 집단 방어를 하고 공동 육아를 할만큼 학습능력이 높다.



QR코드



4

동고비

나무 위의 인테리어 전문가

둥지는 딱따구리의 낡은 등지나 나무구멍을 이용하여 출입구가 크면 흙으로 입구를 막아 좁힌다. 나무줄기를 자유자재로 기어 다니며 머리를 아래로 한 채 거꾸로 다니기도 한다. 대체로 지상으로 잘 내려오지 않으나 때로는 땅위에서 양쪽 다리를 함께 모아 뛰거나 걸으며, 물을 먹을 때도 있다. 울음소리가 크고 금속성 소리를 낸다.



QR코드